



‘작물보호제, 새로운 관점서 평가받아야

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그 성장 기반에는 최고경영자(CEO)가 있다. CEO에게 꼭 필요한 자질을 꼽는다면 무한한 창조와 비전이 아닐까.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먼 미래를 유인해내는 큰 안목을 지닌 사람. 지난 1월 한국인 최초로 국내법인 사장으로 임명된 글로벌기업 신젠타 코리아(주) 김용환 사장(50)을 만났다.

한눈에 외유내강형임을 알 수 있는 김사장에게 먼저 왜 자신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한국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았던 것 같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좋은 역량과 자질을 지닌 임직원, 잘 훈련된 조직을 이끈다는 것은 행운이며 매우 기쁜 일이다. 어깨가 무겁지만 한국농약업계를 위해서라도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겸손한 의지를 보인다.

모두가 입신양명을 꿈꾸었을 학창시절 유달리 생물 화학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김사장의 꿈은

환경관련회사 사장과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어쩌보면 벌써 두 가지를 다 이룬 셈이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전문 CEO의 영광을 안기까지 나름의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이를 가능케 한 키워드는 역시 피나는 노력이다.

일찍이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까지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달은 김사장은 자강불식(自強不息)을 곁에 두고 반성의 재료로 삼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책을 통해 미래를 꿈꾸어 왔다.

한국시장에 대한 본사의 평가와 기여부분도 물었다. “세계 Top 15에 속한 한국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연중 생산되는 수출제품들의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진출의 전진기지로서도 역할이 작지 않다”고 전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우수제품을 줄곧 공급해 왔고 지금은 일반화 된 필드마케팅팀(FMT)을 최초로 도입, 농민의 니즈에 따라 제품 기술 서비스를

선도적 입장에서 보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솔회했다.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인 CEO가 직원들에 주는 메시지는 더욱 궁금했다. “그저 똑똑한 사람보다 매사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큰 안목 속에서 부단히 공부하고 고객의 니즈를 빨리 파악, 고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직원들에게는 “사화만사성(社和萬事成)이다. 가족의 성원이 곧 회사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과 가정(Work & Life)의 밸런스를 강조했다.

최근 안전성 강화로 신 물질 개발비용이 2억 달러를 상회하는 첨단과학의 산물임에도 호평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김사장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을 것”이라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단체 및 방송작가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협회의 홍보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는 “변화무쌍한 21C 산업에 소비자들은 쉽게 적응해 가고 있지만 유독 작물보호제를 보는 시각은 60~70년대에 머물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작물보호제의 생산성 공헌과 무방제시 빚어지는 여러 사례에 대한 현장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작물보호제 비전에 대한 답은 더 구체적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먹고 살아야 한다. 어떤 시장이든 소멸되지 않으며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다”고 선을 긋고는 “5% 내외의 유기농산물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와 관행재배 농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일찍이 유기농업을 도입한 선진국도 5%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유독 한국



평소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을 만나 왔다는 김용환 사장. 진주난봉가가 애창곡일 만큼 음악성이 비범하지만 테니스, 골프, 영화, 클래식 감상, 독서 등 평범한 취미가 더 많은 CEO다.

만이 20~30%로 높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의 세계인구가 85억이며 농산물은 현재보다 50%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과연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기술을 평가받아야 할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좌정관천(坐井觀天)의 시각은 사양했다.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출에도 매진해야 한다는 김사장은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한 에이팜은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PLS)에 제재를 받지 않아 수출시 잔류걱정이 없어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은근히 속내를 드러낸다.

끝으로 몇쩍지만 업계에 첫발을 내디딜 신입 직원들에 대한 정문일침을 부탁했는데 의외로 “꿈이있고 재미가 솔솔한 산업”이란다. “전 세계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열정과 큰 꿈을 갖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웃음 짓는다. Y

이번호부터 「우리시대 CEO」 코너를 준비했다.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신입 전문 CEO들의 비전과 속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